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사사기 8:22-35, 사도행전 19:8-21

최정웅 목사님

지금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다. 역사 속에 보면, 시작은 잘 했는데 끝이 좋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좋은 동기로 시작했다가 타락해서 독재자가 된 사람도 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솔로몬 왕이라든지, 아사 왕, 요아스 왕, 웃시아 왕 같은 사람들이, 시작은 좋았지만 끝까지 좋지는 않았다. 또 자기 자신은 성공했지만 후대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도 있다. 많은 성공자들이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 한국 최고의 재벌 가문에서는 자녀들이 자살하는 일도 벌어졌다. 우리가 3주간 동안 묵상하게 되는 기드온도 그랬다. 오늘 사사기 8장을 읽었지만, 기드온에게는 부인이 많아서 그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고 했다. 또 첩도 있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9장에 보면 그 아들 70명이 모두 첩의 아들 아비멜렉에게 초대를 받았다가 살해당하고 만다. 그 아비멜렉마저도 내전 가운데서 죽고 만다. 멸문을 당한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이 허용한 작은 틈이 있었던 것이다. 성공한 이후에 틈이 생겼다.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지 않으면 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우리가 오늘 성공이 아닌 참된 성공을 해야 되겠고, 성공 이후에 더 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1.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성경 전체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 부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다. 성경의 증언이다. 나는 성경을 꽤 읽었지만, 사실 목사가 되어서까지도, '하나님이 좀 욕심이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너도 고생을 좀 했으니 영광을 좀 나눠 받아라' 하지 않는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했다. '하나님이 욕심이 좀 많으시구나.' 그런데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다. 여러분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나도 기쁘다. 부부의 삶도 마찬가지다. 자기 혼자 기쁘고 행복하면 진짜 행복하지 않다. 상대가 기쁘하고 행복할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을 드린 사람을 또한 자기 우편에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이 추구할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가치, 최고의 누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한참 후에야 이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은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여러분 자신과 가문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란다.

(1)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 세계를 지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인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것이 창세 이전의 문제다. 시간이 존재하기 전, 시간 이전의, 말하자면 영세 전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 사탄이 된 것이다. 이것이 영세 전에 생긴 문제다.

(2) 이 사탄이 쫓겨난 후에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된다. 모든 만물이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가장 조화롭게 지으셨고, 그중에 만물의 왕관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만물을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돌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다. 사43:21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양대는 이것을 알고 찬양해야 한다. 사43:7-8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들을 오게 하라." 말씀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반주하는 분들도, 내 기능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해야 복을 받는다. 그래야 불편함이 없다. 찬양대도 내게 주신 음성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다 해야 한다. 찬양대실, 찬양대석에서만 찬양하지 말고 현장에서, 가정에서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란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 가장 가치있고 보람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 중에 나라를 위해 산 사람이 많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 인류 공영을 위해서 살게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 로마서 16장, 히브리서 11장, 교회사의 인물들이 다 그렇다.

(3)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 버렸다. 마귀는 자기가 타락했던 것과 똑같은 말로 인간을 속였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는 말로 인간을 타락시킨 것이다. "내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하나님이 되라 하고 속였는데, 거기에 속은 것이 인간이다. 그 결과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지금도 사람들이 이런 속임수에 빠져서 계속 흘러가고 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인간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계속 타락하고 범죄함으로써 귀신을 섬기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나님 대신 버리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이러면서 계속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온갖 저주 재앙을 겪다가 마침내 지옥에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된 것이다.

(4) 그래서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원래 인간의 창조 목적과 원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다. 만물의 질서가 창세기 3장 이후에 다 깨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면서 만물을 또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미 처음부터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다. 이것이 창3:15의 복음이다. 예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시고, 지옥의 배경에서 인간을 건지셔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회복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 회복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인 것이다. 정말 복음이 회복되고 확립되고 누려진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방금 강복노회에서 제직수련회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말이 들어왔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 해서,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복음은 많이 들었는데, 삶이 안 되어서, 봉사생활, 헌신생활을 잘 못합니다." "야 이 사람아, 우리교회는 강사님 모실 때는 '복음만 말해 주세요' 한다. 왜 나를 불러서는 복음만 말해 달라 하지 않고 삶을 말해 달라 하느냐." 자기도 웃으면서,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을 말해주는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했다. 알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복음이 진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면 말 안 해도 봉사하게 되어 있다. 보이니까. 보이면 말하게 되어 있다. 직원에 배를 오전 9시 반에 드리는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처음 난 식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다고 했다. 그런 성경을 여러 번 읽으니까, 나는 당연히 첫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도 완전히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셨다. 제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복음으로 살면 자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다. 믿어라, 사랑해라 해서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음의 근본, 소망의 근본, 사랑의 근본이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면 (무엇을 섬겨야 할 것인지) 보여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한다. "내가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 회복이 곧 하나님의 영광 회복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엠1:3-5은 이렇게 말씀한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다. 찬미하는 중에, 그런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찬미하시기 바란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것은 전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덕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한다. 그 은혜와 복음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나같은 죄인도 능히 구원해낸 것이다. 현장에서 복음을 받고 중독에 시달리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가문의 저주 문제가 끊어지고, 우울증도 꺾이고, 공황장애가 해결되는,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는 끝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인가. 복음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현장에서 회복되기를 축원한다.

(5) 이렇게 복음을 회복했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을 회복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가? 고전10:31에 분명히 말씀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우리 장로교의 슬로건이다. 장로교의 슬로건은 예정론 같은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 영광(Soli Deo Gloria)’이다. 우리집 가훈도 그것이다. 나는 한 번도 아이들을 공부로 가지고 닦달한 적은 없다. 다만 찬양할 수 있도록 피아노를 배우게 했다. 내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자기 자녀들에게 악기와 운동을 가르치려고 했더니, 아이들이 싫어했다고 한다. “왜 아빠의 한을 나한테서 풀려고 그래요?” “내가 고아로 자라서 그런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야. 너희가 미국에 사는데, 세계의 중심에서 운동이나 악기를 잘 다룰 줄 알면 얼마나 너희의 삶이 풍요롭게 되겠니.” “그래도 싫어!” 그랬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깨달아진다. 나는 어릴 때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도 아버지 들어오시는 소리가 나면 일부러 불 끄고 자는 척 하고 그랬다. 잔소리 듣기 싫어서. 지금 보면 일찍 자고 일부러 그때 일어나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싫다. 그렇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인데. 종교개혁자들의 목표는 분명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면 생명을 걸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없이 포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다. 우리 직원과 전 교인 삶의 목표가 그것이다. 오직 주께 영광이다. 노래도, 운동도,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박주영 선수는 골을 넣었게 넣으면 딱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 것이다. 그랬더니, 아스날 구단주가 이슬람교도다. 보기 싫다고 출전을 안 시켰다. 그래서 그냥 놀기만 하고 돌아왔다. 그래도 끝만 넣으면 감사하고 기도한다.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2.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영적 싸움을 하라.

두 번째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영적 싸움이다. 여기에 성공하는 참사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1)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신자들 중에도 성공자가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다. 성공자가 없어서 세상에 문제 오는 것이 아니다. IS 집단에 돈을 대고 기술을 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돈 많은 성공자들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기술 개발해서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것이다. 우리는 성공해야 할 바른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램넛들이 성공해야 할 바른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성공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류 공영을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장에 없어진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한다는 말이다. 램넛들의 목표가 견실해지기를 바란다. 올바른 목표를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성공의 이유가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후대에 각인되고 뿌리내려져서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가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이 되어지면 나도, 가문도, 조국도 영광을 받고, 인류가 행복해지게 된다.

(2)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성공의 방법이다. 내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해야 한다. 불신자들처럼 인본주의 쓰고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된다. 내게는 이익이 좀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욕이 돌아간다. 전부 거짓 방법으로 성공해 봐야, 불신자들도 다 하는 성공일 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누리면서 성공해야 한다. 복음을 누리면서 성공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응답의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성공해야 한다. 사람을 죽이는 가짜 성공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3)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 성공을 다 해 놓고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실패했다. 자기가 금붙이 같은 것을 가져다가 에봇을 만들었는데, 자기를 영화롭게 하

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계속 이스라엘에 울무가 되었다. 후대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되었다. 그 아들 70명이 다 죽임을 당한다. 생일잔치라고 초창해 놓고 모아놓은 70명을 모두 다 죽였다. 그리고 아비멜렉 자신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내란을 일으켰다가 죽고 말았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다. 잠16:5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했다. 응답 이후에 교만과 불신앙으로 우상과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의정부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탤런트 한 분을 모셨다. 지금은 인도에 선교사로서 있다. 이분을 중고등부 집회에 초청했다. 얼굴도 예쁘고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는지 모른다. 너무 감사하다. 은혜를 받았다 하면, 이분이 손짓을 위로 올리는 것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계속 그러는데, 그 모습이, 그 얼굴보다 더 예쁘고 아름다웠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 내가 좀 괜찮지’ 하는데, 그분은 달랐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김영자 선교사님이다. 김익두 목사님의 손녀다. 지금도 인도에서 생을 바쳐 선교하고 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 고백해 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그렇게 행복한 것이다. 이번 주간, 또 우리의 일생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순간도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서, 이 일을 위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란다. 이 유도 방법도 결과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한 주간, 또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바란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끝을 보고 가야 한다. 성공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성공한 후에 착각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면 죽는다.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고 성공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 후에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그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것을 섭취하게 되면 사람이 이상해진다. 변질되어 버린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복음 반대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된다. 이렇게 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 여러분, 세상이 보는 성공은 사실은 성공이 아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수준 낮은 인생을 살지 말고, 성공 이후의 것을 보면서, 결과를 보면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기드온은 이것을 놓쳤다. 이스라엘을 살렸으면 이것을 복음운동, 램넛운동, 선교운동으로 연결시켜야 하는데, 그 성공에 안주해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지금 정치인들이 서로 잘났다고 아단인데 보면 다 그렇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가? 성공 이후의 것을 보았다. 어마어마한 사역의 성공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신약 본문 2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 사역을 여기에서 마쳤지만, 나는 로마까지 가겠다 하고 더 큰 현장을 본 것이다.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이 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우리는 결과도 알고 있다. 세계복음화되는 그 날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렇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과정에 속지 말고,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참된 성공을 누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그 골을 향하여 전진하고 달려가는 한 주간, 또 금년 한 해,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축원한다.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설교를 마치겠다. 벌써 준비는 했는데 불러도 되나 싶어서 안 불렀지만, 이 응답을 받고 싶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 설 맘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목표를 거기에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가든지 오든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의미, 최고의 보람을 거기에서 찾도록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찬미 위에, 언약 위에, 복음 위에 설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